

안 그래픽스 인쇄, 싸인,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lcpa.com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PIWC Group Agency 자동차, 집, 사업체, 중업원 상해 보험 장인옥 베드로 404-644-8658	SB 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오즈 냉 동 에어컨,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FARMERS INSURANCE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04-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	배용자 루시아 보험 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미소 치과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	AAA 이창호 보험 Insurance Checklist 메디케어 신청, 변경 도와드립니다. 이창호 바오로 678-910-0884 cclee@acg.aaa.com 2628 Pleasant Hill Road #700 Duluth, GA 30096		
ALFONE LIFE FINANCIAL & INSURANCE SERVICE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Suwanee ORTHODONTICS Elevate Your Smile 스완니 교정 치과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주말 예약 가능 카톡상담(Suwaneeortho)	확실한 카이로프랙틱 더조은 척추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MASTER REALTY 김선민 요안나 부동산 404-285-6472 smkim@master-realty.com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Better Homes and Gardens REAL ESTATE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KW KELLER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 토지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	 Pinehill Realty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滿天紅 Man Chun Hong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 천 홍 770-454-5640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오민환 파비아노	So Good (Bridal&Beauty)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			
 교통사고 상해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트 맞은편)	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朝鮮日報 에틀렌타 조선일보 마케팅 사원 모집-0명 자격 요건에 따라 H1-B, 영주권 스폰서 가능 이력서 보낼 곳: kookjinlee@yahoo.com 문의: 678-468-8565			
GIFTS GOLD · CROSS · REPAIRS 십자가, 성상 · 성화, 목주, 책 ·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SONAMOO 소나무 Auto Repair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대림 제4주일 성 가: 입당: 97 봉헌: 511 성체: 502/501 파견: 91 제1독서 이사야서 7,10-14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할 것입니다. 화답송 시편 24(23),1-2.3-4.5-6(◎ 7과 10참조)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제2독서 로마서 1,1-7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복음 마태오 1,18-24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리라. 영상제송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순교자 주보



에틀렌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2년 12월 18일

NO.2178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ka.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대림 제4주일, 대림초>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30am
교중미사	10:30am
영어미사	12:15p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12:00p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리라. (마태오 1,18-24)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① 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② 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③ 하기로 작정하였다.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④ 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⑤ 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 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23 “보아라, ⑥ 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구절은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잉태하십니다. 그리고 90살이 넘는 사촌 언니 엘리자벳이 임신한지 6개월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잉태도 확인하고 언니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해산때까지 그곳에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약혼자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엘리자벳 집에 데려 다 주시고 3개월 후에 모시러 갔는데, 그곳에서 나귀에 오르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두 분은 산과 들을 넘어오면서 무거운 침묵속에 살 얼음 건듯이 마음 조이면서 나자렛에 도착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록 의인이신 요셉 성인이지만, 어떻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어서 마리아를 내려놓자마자 자기 집으로 가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텐데, 성모님은 주님을 전전으로 신뢰하시면서 하느님의 뜻만을 기다리셨던 영웅적인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요셉성인은 엄청난 배신감 속에서 고민하다가 끝에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늘 어려울 때 마다 꿈에 찾아와서 방향을 제시하는 천사가 “...마리아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인은 즉시 잠에서 깨어나 마리아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셨고, 자신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면서 하루속히 결혼식을 하여 같이 살기로 하셨습니다. 오래 있으면 아마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했 느냐는 구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약혼 때 이미 동정으로 살고자서로 서원을 하였기에 방을 따로따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참조)


이 묵상에서 가장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동시에 회개로 이끌었던 것은 성모님의 확고한 신뢰, 변명없이 쏟아지는 비를 다 맞으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 지길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늘인내 부족으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생각없이 내던지는 말로 실수하던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성 찰 |

내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복음 말씀 빈칸 채우기


- ① 요셉 ② 성령 ③ 파혼 ④ 성령 ⑤ 죄 ⑥ 동정녀




프란치스코 교황의

“하느님은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분께 귀를 기울입니다.”

한국어



ENGLISH



전례 주년의 첫 시기인 대림시기는 우리에게 성탄을 준비시키고, 이 준비를 위한 기다림의 시기이자, 희망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오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오시는 하느님, 계속해서 오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어찌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을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를 어둠 속에서 얼마 동안 기다리게 하시겠지만,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오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많은 경우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항상 오십니다. 정해진 역사적인 순간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몸소 짊어지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탄 축제는 역사적인 순간에 (오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오심을 기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세상의 심판관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으로, 세 번째로도 오실 겁니다. 곧, 말씀, 성사, 형제자매들 안에서 당신을 맞이하는 모든 이를 방문하시러, 당신 백성을 방문하시러 매일 오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묵시 3,20 참조). 매일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말입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시겠지만, 매일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듣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잘 살펴보십시오.

삶은 기복이 있고, 빛과 그림자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낙심, 실패, 혼란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점철돼 있고, 수많은 걱정, 두려움과 낙담을 낳습니다. 비관주의에 빠질 위험, 마음을 닫고 무관심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다음의 시편 구절이 이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이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한 다네”(시편 33[32],20-21). 다시 말해 (주님을) 기다리는 영혼, 주님에 대한 신뢰 깊은 기다림이야말로 실존의 어두운 순간에 위로와 용기를 찾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기와 이 같은 신뢰 깊은 투신은 무엇에서 나오니까? 어디서 생깁니까? 희망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희망이라는 덕목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만남을 바라보게 하며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정도로 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지지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서 걸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여정의 의미, 일상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실존적인 사건 안에서 동반하십니다.

대림시기는 희망에 대한 끊임없는 부르심입니다. (이 시기는) 하느님이 역사를 최종목표로 이끄시기 위해, 완성으로 이끄시기 위해 역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 완성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은 인류의 역사 안에 현존하시고,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지지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서 걸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삶의 폭풍우 한가운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온갖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이는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다림의 여인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 전례력의 새해에 우리의 발걸음을 동행해주시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행해야 할 임무를 실천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닌 희망에 관해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1베드 3,15 참조).

(번역 이창욱 전문 보기[vaticannews.va])

눈을 마주하며 < 마태오 1,18-24 >

배영길 베드로 신부

님께서 찾아와
눈을 마주하며,
나를 위로해 주리라.

그때는
님의 눈을 마주하며,
이 시간을
품을 수 있으리라.

님의 눈을 마주하며.





12월 11일 (일) 주일학교 + 사회복지부와 김치 나눔 행사

자선 주일을 맞아 주일학교 학생들이 김치를 만들어 보고, 완성된 김치를 사회복지부와 함께 본당 노인 아파트분들께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11일 (일) 주일학교 판공성사

3, 4, 5학년 아이들이 보좌신부님께 대림 판공 성사를 보았습니다.



12월 10일 (토) 빛과 소금 송년회



12월 9일 (금) 만나 합창단 송년모임



12월 11일 (일) 꾸리아 월례모임



12월 11일 (일) 복사단 피정 기금 마련 판매



12월 11일 (일) 새신자 환영회

“예”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정녀(1640-1650) 조반니 바티스타 살바(Giovanni Battista Salvi), 영국 런던 국립미술관

네 개의 대림초가 모두 켜진 대림 제4주일을 맞았다. 오늘 전례는 주님의 강생과 구원의 신비에 협조한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어 나자렛 마을의 처녀 마리아에게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구세사의 중대한 사건(루가 1,26-38)이 선포되는 것이다.

전적인 순종으로 “예”하고 답하신 마리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선포된 예언 말씀이 실현되기에 이른다. 구세주께서 오신다는 것은 참으로 벅찬 기쁜 소식이다. 두려움마저 모두 말기고 순종하신 마리아의 전적인 응답은 구원사적인 기쁨을 실현하셨다.

이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의 ‘오심’이 임박했다. 겸허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에 맞는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이 오도록 “예”하고 응답한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을 두 손 모아 청해본다.

임마누엘 (Immanuel)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임마누엘은 하느님(eli)께서 우리와(manu) 함께 계신다(im)는 뜻이다. 히브리어였던 이 말을 희랍어로 음역한 것이 임마누엘(immanuel)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었다. 선민이었던 그들만의 특권이었고 이방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항이 아니었다. 그런데 마태오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출현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마태 1,22). 그분의 등장으로 임마누엘은 유대인만의 용어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임마누엘은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메시아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되었다. 임마누엘은 구약성경에 2번 등장한다(이사 7,14, 8,8). 여기서 이사야는 아하스(Ahaz)와 그의 왕실

을 적으로부터 구원할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에게 상징적으로 붙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예언자가 선포했던 임마누엘 예언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강생의 신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돌보아주시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제 임마누엘은 구약 사건이 아니라 신약의 사건이 되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평범한 용어가 된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요한 1,14). (catholic.or.kr)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7,14참조)



<신뢰> 김인숙

판공을 준비하는 가톨릭 신자의 여섯 가지 기본 자세

- 모든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미국 천주교회는 부활절, 1월 1일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대축일, 부활 이후 주님 승천 대축일,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의무 축일로 지냅니다.
-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신자들이 그 신원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통은 2~3달에 한 번 정도 고해성사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일년에 한 번만 영성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하여 자주 성체를 받아 모실 것을 권고합니다.
- 정해진 날에 금식재(재의 수요일, 성 금요일)와 금육재(매주 금요일)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분발아 자신을 억제하고 하느님께 희생을 바치며 금식과 금육으로 얻게된 재화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는 뜻으로 이 규정을 정한것입니다. 단, 노약자는 관면됩니다.
- 교회의 유지비(교무금)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무금, 주일 헌금, AA기금 포함하여)
-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
신자들 서로간의 혼인은 성사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면혼배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구동욱 미카엘 주임 신부

